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기술주 강세로 뉴욕증시 상승 마감

Key Takeaways

- 주요 지수 상승 마감: 다우(+1.0%), S&P(+0.7%) 사상 최고치 경신
- 기술주 강세: 애플(+1.7%), 마이크로소프트(+0.7%), 아마존(+1.3%)
- 9월 FOMC 의사록 공개, 금리 인하폭 두고 논쟁

Summary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상승 마감함.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2,512.00으로 전일 대비 1.03%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5,792.04로 0.71% 올랐음. 나스닥 종합지수는 18,291.62로 0.6% 상승했으며,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2,200.59로 0.26% 상승함.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애플은 1.67%, 아마존은 1.34%, 마이크로소프트는 0.66% 올랐음. 이와 함께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도 공개되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경제 회복과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특히 금리 인하폭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고,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함. 이날 원유 가격은 미 에너지정보청(eia)가 발표한 주간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하락함. 투자자들은 목요일 발표 예정인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이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시장은 건조한 모습을 유지함. (다우 +1.0%, 나스닥 +0.6%, S&P500 +0.7%, 러셀2000 +0.3%)

특징종목

노르웨이인 크루즈 라인 홀딩스(+11%)는 씨티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함. 씨티는 해당 기업의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변경하고, 향후 주당순이익(EPS)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익 상승과 마진 확대를 전망함. 이러한 변화는 여행 수요 회복과 크루즈 산업의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 향후 실적 개선에 따른 추가 주가 상승이 기대됨. 반면, 보잉(-3%)의 주가는 기계공 노조의 파업 지속으로 인해 하락했음. 노조와의 협상 결렬로 인해 보잉은 제안했던 계약을 철회하고 S&P 글로벌 레이팅은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이는 생산 차질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단기적인 주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알파벳(-1.5%)은 미 법무부가 구글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임. 이는 미국 판사가 구글이 독점을 유지해왔다고 판결한 이후의 움직임이고, 향후 규제당국의 결정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임.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기업의 미래 전략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를 모으고 있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최근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07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연준이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해 의견이 갈리면서 나타난 결과임.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인덱스가 102.90으로 올랐으며, 이는 주요 통화에 비해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결과임. 특히, USD/JPY는 149.31로 일본 엔에 대한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음.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 가격이 73.36으로 하루 동안 0.29% 하락하였음. 브렌트유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며 76.71에 거래 중임. 반면, 금 가격은 2607.71로 하락하며 하루 동안 0.54% 감소했음. 최근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거래자들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를 주목하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S&P500 (SPY)	+0.7	배당성장 (SCHD)	+0.9
S&P500 동일가중 (RSP)	+0.7	미 국채 (AGG)	-0.3
나스닥100 (QQQ)	+0.8	미 장기 국채3X (TMF)	-1.8
다우 (DIA)	+1.0	매그니피센트 7 (MAGS)	0.0
대형성장 (MGK)	+0.6	인공지능 (AIQ)	+0.7
소형주 (IWM)	+0.2	메타버스 (METV)	+0.2
인도 (INDA)	+0.5	클라우드 (CLOU)	+1.5
중국 (FXI)	-1.6	2차 전지 (LIT)	+0.5
반도체 (SOXX)	+1.0	로봇 (BOTZ)	+0.3
부동산/리츠 (VNQ)	+0.1	방위산업 (SHLD)	+0.6
헬스케어 (XLV)	+1.0	스마트 그리드 (GRID)	+0.8
항공 (JETS)	-0.3	미국 인프라 (PAVE)	+1.0
소프트웨어 (IGV)	+1.3	친환경 (ICLN)	-0.3
바이오테크 (XBI)	-0.8	우라늄 (URA)	+0.4

US Sector Index

S&P 500	증가	D-1(%)	D-5(%)	D-20(%)
헬스케어	1,788.1	+1.0	+0.2	-0.9
IT	4,488.1	+1.0	+4.1	+10.8
산업재	1,155.9	+0.9	+1.0	+7.1
금융	761.0	+0.9	+1.4	+2.1
필수소비재	876.1	+0.8	-0.3	-2.1
경기소비재	1,587.1	+0.7	+0.1	+7.2
소재	599.9	+0.6	-0.6	+5.2
에너지	705.1	+0.5	+0.8	+6.5
부동산	271.9	+0.0	-2.0	-1.6
커뮤니케이션	314.3	-0.5	-0.0	+10.0
유틸리티	400.1	-0.9	-3.3	+3.3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및 지수	증가	D-1(%)	D-5(%)
WTI	73.2	-0.4	+4.5	달러인덱스	102.89	+0.3	+1.2
Brent	76.6	-0.5	+3.9	유로/달러	1.0939	-0.4	-1.0
미국 천연가스	2.7	-2.7	-7.8	달러/엔	149.31	+0.7	+1.9
석탄	117.9	-2.2	+2.1	달러/역외위안	7.0927	+0.3	+0.8
금	2,626.0	-0.4	-1.6	달러/원(NDF)	1,345.3	+0.5	+1.7
은	2,545.0	-1.0	-5.0	비트코인	60,393	-3.1	-3.3
구리	9,684.0	-0.6	-4.0	이더리움	2,354	-3.6	-3.1
알루미늄	3,032.5	-1.9	-4.4	나스닥 크립토	3,070	-2.6	+0.3
밀	599.0	+0.7	-2.6	CRB 상품	341.9	-2.1	+0.4
대두	1,020.3	+0.4	-3.4	LME 금속	4,228	-2.3	-2.5
소고기	187.2	-0.3	-0.3	발틱 건화물 운임	1,799	-3.3	-3.5
돼지고기	75.6	-2.1	-1.5	컨테이너 운임(주간)	3,489	-1,692	-1,82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주요 스프레드	증가(%)	D-1(bp)	D-5(bp)
미국	4.07	+6.1	+29.2	미 국채 10-2년	4.7	-0.5	-8.9
한국	3.08	-2.1	+8.8	미-한 국채 10년	99.3	+6.1	+8.2
일본	0.94	+0.8	+10.9	미-일 국채 10년	313.8	+5.3	+12.5
독일	2.26	+1.4	+16.5	프-독 국채 10년	77.0	+0.00	-0.0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주: 컨테이너 운임(주간)은 1M, 3M 대비 및 CRB 상품, LME 금속 지수 1일 지연 시세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금융투자분석사가 공표한 자료입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